

담화 분석과 접근 방법

구 유 선
(충남대학교)

Koo, Yu-son. 2000. *Approaches to Discourse*. *Linguistics*, 8-1, 171-189. Discourse analysis is considered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consisting basically of linguistics, sociology, ethnography, and literary cri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nd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hesion and coherence. Then six different approaches: Speech Act Theory, Pragmatics, 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Conversation Analysis, and Variation Analysis are considered in terms of two distinctive and incompatible styles of analysis, Discourse Analysis and Conversation Analysis. And I attempt to bridge the dichotomy of these two analys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담화¹⁾ 분석(discourse analysis)이란 용어는 단일한 분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사회언어학, 민족지학, 심리언어학, 문학 이론, 전산 언어학 등 각각의 접근 방법은 다른 문제와 현상을 주목하지만 담화 분석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언어학의 두가지 패러다임은 언어의 일반적 성격과 언어학의 목적에 대해 다른 가정을 제공한다.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은 때로는 다르게 불린다. Newmeyer(1983)가 형식론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Hymes(1974)의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이나 Hopper(1988)의 용어로 선행적 문법(a priori

1) 담화는 광의로는 텍스트와 같이 '실제상황에서 사용되는 문장의 연속체'의 개념으로 동일하게 간주된다. 그러나 협의로는 서로 구별된다. Brown과 Yule(1983: 6)은 텍스트를 의사소통적 행동의 구어 기록을 지칭하는 전문적 용어로 형식적이며 담화는 비형식적이라고 본다. van Dijk(1977)도 텍스트를 담화에서 실현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구성요소로 보고 텍스트 대 담화의 관계를 문장 대 발화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grammar)과 비슷하다. 기능론적 패러다임은 Hopper의 출현적 문법이나 상호작용적(Mey 1993) 문법으로 불린다. 두가지 패러다임의 차이는 언어학 이론의 목적에 대한 다른 배경가정과 언어를 연구하는 방법, 자료의 성격과 경험적 증거를 만든다. 이런 패러다임의 차이는 담화의 정의에도 영향을 준다. 형식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기인한 정의는 문장으로서 담화를 보고 기능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기인한 정의는 담화를 '언어사용'으로 본다. 세 번째 정의는 형식론과 기능론의 이분법을 연결하는 것이다.

Schiffrin(1994)은 담화에 대한 여섯 가지 다른 접근 방법: 화행 이론,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화용론, 대화분석, 다양성 분석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텍스트 언어학, 인지 심리적 접근 등 담화의 많은 연구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무시된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정확한 제목은 *Sociolinguistic Approaches to Discourse*가 보다 적합하다(Payne 1997). 또한 최근 담화 연구에 있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관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설명되지 않고 있다. 각각의 접근 방법을 따로 제시하기보다는 관련 있는 접근 방법끼리 묶어 그 관련성과 차이점을 보여 줄 주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근거해서 담화 접근 방법을 구분함에 있어 크게 Levinson(1983)에 근거하여 담화 분석과 대화분석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연관된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담화 접근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담화 연구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주요 개념들에 관해 고찰해 보겠다.

2. 담화의 주요개념: 응결성 대 응집성

Salkie(1995)는 문장문법의 문법성에 대응하는 텍스트의 응집성을 'coherence'로 비문법적인 문장 연속을 비응집적이라고 정의하는 이분법을 택한다. Halliday and Hasan(1976)은 형식적인 어휘, 문법적인 측면에 치중한 응결성 모형을 제시하는데 이는 의미, 내용 면의 응집성과 차이를 보인다. Beaugrande and Dressler(1981)는 텍스트성에 두 가지를 포함시킨다.

- (1) Beaugrande and Dressler(1981)의 텍스트성
 - a. 응결성(cohesion)
 - b. 응집성(coherence)

- c. 의도성(intentionality)
- d. 용인성(acceptability)
- e. 정보성(informativity)
- f. 상황성(situationality)
- g.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이중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은 응집성의 개념으로 설명 가능하고 상호텍스트성은 응집성과 응결성의 성격을 둘 다 가진 것이므로 응결성과 응집성 두 가지의 개념으로 통합 가능하다. 응결성은 담화 부분간의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짜임새이고 응집성은 의미의 연결성이다. 심층 의미의 응집성이 표층의 문법장치에 의해 응결성을 가진다.

기능 문법적 담화 분석의 Halliday(1985)는 영어의 문법적 어휘적 응결장치를 지시, 대치, 생략, 접속, 어휘적 응결로 제시한다. 응결성은 일반적으로 담화나 텍스트 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나타낸다(Verschueren 1999). 응결성 중 한가지 양상이 시간적 순서이다. 다음은 Norman Fairclough의 Sarangi와 Slembrouck(1996L ix)의 소개의 첫단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응결 현상을 고찰해 본다.

- (2) (a) There are two powerful interlocking tendencies affecting contemporary public discourse in Britain and other similar societies. (b) The first is a tendency to what we might call the 'marketisation' of discourse — the extension of the discursive practices of commodity markets to, for instance, professional and public service domains. (c) An example is the proliferation in these domains of forms of advertising discourse. (d) The second is the 'conversationalisation' of public discourse, the appropriation and simulation in public discourse of features of conversational discourse. (e) These changes in discursive practices are part of wider processes of social change affecting late modern societies — the incorporation of vast new areas of social life into markets, and the colonization of ordinary life by economic and bureaucratic systems. (f) Social change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is increasingly centered upon cultural change, and cultural change often takes a pre-eminently discursive form. (g)

Consequently, analysts of discourse are in a position to make a substantive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processes of social restructuring which dominate contemporary life, by investigating tendencies such as the marketisation and conversationalisation of public discourse. (h) This book takes a significant step in that direction in its analysis of the discursive aspect of major current changes in the ways in which bureaucracy works in modern societies.

위에 제시된 텍스트에서 나타난 응결성 표지들은 다음과 같다.

- 지시: 조용 혹은 이전 담화 내의 다른 용어와 같은 개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공지시를 형성하는데 (g)와 (h)에 나타난 *which*와 같은 관계대명사, (c)의 *these domains*와 (e)의 *these changes* (h)의 *that direction*과 같은 지시사, (h)의 *its* 소유격 등과 (h)의 *this book*의 예측적 자기지시로 사용되는 지시사.
- 대치: (a)에서 *Britain and other similar societies*, (e)에서 *late modern societies*, (f)에서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h)에서 *modern societies* 등.
- 생략: (b)에서 *the first [powerful tendency]*, (d)에서 *the second*, (g)에서 *consequently*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f)로부터 삭제된 중간 결론 ('This social change takes a pre-eminently discursive form').
- 접속: (a)에서 *Britain and other similar societies*, (e)의 *economic and bureaucratic systems*, (g)에서 *marketisation and conversationalisation* 등과 접속사, 예시는 (b)에서 *for instance*, (c)에서 *for example* (g)에서 *such as* 등과 (g)에서 *consequently*로 나타나는 논리적 관계, (a)의 *two*, (b)의 *the first*, (d)의 *the second* 등의 숫자, 접속에 의해서 밀접하게 연결된 (b)의 *professional and public service domains*나 (d)의 *appropriation and simulation*은 구조적 도상성(iconicity)으로 불리는데 도상성이란 언어형태의 비자의적 양상을 설명하려는 용어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언어적 형태의 비자의성, 유의미성을 말한다.

응집성²⁾이란 응결성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담화나 텍스트를 연결해 주는 의미상의 조건이다. 응집성과 응결성은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으로 서로 불

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응결성은 텍스트다움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텍스트다움의 기본 조건은 텍스트 사이의 의미의 그물망 곧 응집성의 형성이다. 응집성은 내용의 일관성 내지 주제의 일관성이다. 의미적 요건은 일차적으로 가지고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의도성과 용인성은 심리적 요인이고 정보성과 상황성은 사회적 요인이다(고영근 1999). 다음의 예를 보자.

- (3) a. The procedure is actually quite simple. First you arrange things into different groups. Of course, one pile may be sufficient depending on how much there is to do. If you have to go somewhere else due to lack of facilities, that is the next step, otherwise you are pretty well set.
- b. It is important not to overdo things. This is, it is better to do few things at once than too many. In the short run this may not seem important, but complications can easily arise. A mistake can be expensive as well.
- c. At first the whole procedure will seem complicated. Soon, however, it will become just another facet of life. It is difficult to foresee any end to the necessity for this task in the immediate future, but then one never can tell.
- d. After the procedure is completed, one arranges the materials into different groups again. Then they can be put into their appropriate places. Eventually they will be used once more and the whole cycle will then have to be repeated. However, that is part of life.

일견 (3a-d)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탁에 대한 지식’이라는 주제를 적용하면, 전달하는 내용이 응집성 있게 된다. 이와 같이

2) H. Büßmann(1990: 389)은 광의의 응집성과 협의의 응집성을 구별하고 전자를 “텍스트 형성적 결속 관계”로 모든 종류의 문법적 관계와 의미적 관계들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를 의미적 결속 관계로 구분한다. 그러나 Halliday and Hasan(1976)은 대치나 생략과 같은 순수한 응결 수단뿐만 아니라 지시와 같은 응집 수단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인 응결성을 사용한다.

하나의 일관성 있는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문장들 사이에 내용적 또는 인지적 결속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Beaugrande and Dressler(1981)의 텍스트성에 입각한 의미·화용적 역할과 Hobbs(1979), Johnson-Laird(1983), van de Velde(1984) 등의 심리적 인지적인 역할로 구분된다.

담화의 인지적 측면에서 응결성과 응집성과 함께 거론되는 개념은 Sperber and Wilson(1986)의 연관성(relevance)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3. 1. 2. 화용론에서 자세히 고찰하겠다.

3. 담화에 대한 접근 방법

Levinson(1983)은 언어이론에 바탕을 두는 추상적인 텍스트를 담화 분석으로 실제 회화를 분석하는 Sacks 외(1974)의 자료 중심의 회화 분석으로 구분한다. 담화 분석은 언어학 특유의 이론적 원칙과 개념을 원소적 개념으로 이용한다. 규칙과 적형성 등이 그 예로 이는 응집성 있는 적형한 담화인지의 여부는 직관에 의존한다(van Dijk 1977). 미국 구조주의 Harris(1951)의 담화 분석과 전통적인 담화 분석이 전자에 속한다. Pike(1967)의 태그미믹스(tagmemic) 이론을 텍스트 분석에 적용한 Longacre(1976)와 van Dijk(1977)의 변형 문법식 접근, Halliday and Hasan(1976)의 기능 문법적 접근, Beaugrande and Dressler(1981)가 이 계열에 속한다. 정보의 전달과 심리를 중시하는 Clark and Clark(1977), Johnson-Laird(1983), 연관성이론의 Sperber and Wilson(1986)도 이론 정립이 자료보다 우선한다는 면에서 이 부류이다. 전산언어학이나 인공지능으로 접근하는 Polanyi(1990)의 LDM(Linguistic Discourse Model)도 이 부류에 속한다.

반면에 대화분석의 Sacks 외(1974)와 Pomerantz(1984)는 성급한 이론 설정을 배제하고 귀납적 방법을 택한다. 담화 분석에서 첫 단계로 제한된 자료의 범주화가 선행되는 반면에 대화분석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반복적형을 찾는다. 통사 기술에 사용되는 규칙의 이론적 존재 대신에 선택적 발화 중 하나를 선행하는데 따르는 상호 작용 및 추론적 결과를 강조하고 담화 분석과는 달리 직관적 판단에 적게 의지한다. 담화의 분석과 기술에 유용한 개념은 화자의 말차례, 발화 중복, 공백, 인접쌍 등이다.

Schiffrin(1988)은 대화분석가들이 동의하는 두 가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실제 구어 대화를 자료로 사용한다는 점과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문자전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담화 분석의 접근 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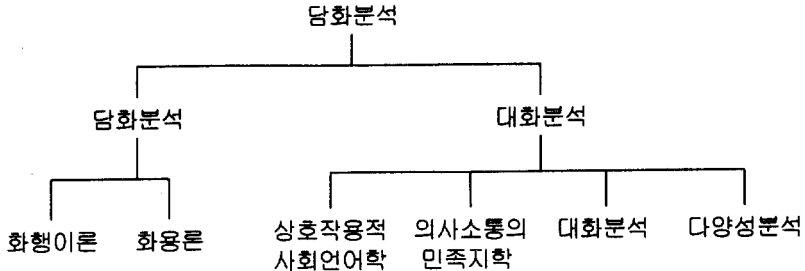


그림 1. 담화 접근 방법

두 가지 접근 방법 모두 담화 내의 응집성과 순서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해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다. 담화 분석의 장점은 문장 내적 조직에 관해 알아낸 언어학적 측면을 담화 구조에 관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 대화 분석의 장점은 대화조직에 관한 구체적 형태를 보여준다.

3. 1. 담화 분석

담화 분석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화행 이론과 화용론으로 구분한다. Austin(1962)의 화행 이론과 Grice(1957)의 대화상의 격률은 담화와 화용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이다.

3. 1. 1. 화행 이론

Austin(1962)과 Searle(1969)은 언어가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자체의 수행에서 나타나는 다른 행동 범위를 수행한다는 기본적인 견해에서 화행 이론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I promise to

be there tomorrow.”는 약속의 행동을 수행한다. 발화는 하나 이상의 행동을 수행할 수도 있다.

(4) SPEAKER: Can you pass the salt?

HEARER: /passes the salt/

화자의 발화 *Can you pass the salt?*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요청일 수도 있다. 두 개의 다른 화행 사이의 관계는 발화 수반력을 가진 간접 화행으로 불린다(Searle 1975). 화행 이론 자체는 텍스트를 분할하는 수단과 더 큰 구조로 통합될 수 있는 단위를 정의하는 체계를 제공한다. Austin(1962)은 화행 이론에서 다음의 세가지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기술한다.

(5) Austin의 화행의 구성

- a.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 b.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 c.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

발화 행위는 문장의 의미와 지시를 결정하는 행위이고 발화 수반 행위는 발화행위에 따르는 진술, 명령, 약속 등의 행위이고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로 청자를 기쁘게 하는 등의 효과 행위이다. 이 중 두 번째 발화 수반 행위가 핵심이 된다.

Searle(1969)은 Austin을 이어 화행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5가지 종류의 화행을 제안한다.

(6) 화행의 종류

- 지칭(representatives)
- 지시(directives)
- 약속(commisive)
- 표현(expressives)
- 선언(declaratives)

간접화행은 문자적 힘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 LFH)과 관계되지 않은 힘을 가지는 화행을 가리키는 용어로, LFH는 '발화수반력은 문장 형식

에 반영된다'는 가설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는 LFH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용어법이론과 추론이론을 들 수 있다. 관용어법이론은 예를 들어 'Can you VP'를 'I request you to VP'에 대한 관용문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들은 합성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완전체로써 어휘부문에 기록된다. 반면 추론이론에서는 'Can you VP'라는 형식은 LFH에 의해 질문이라는 문자적 힘을 가지나, 문맥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추론에 의해 요청이라는 간접적인 힘도 가진다고 본다. 추론이론의 대표적인 예는 Searle(1975)을 들 수 있다. LFH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발화수반력은 전적으로 화용론적인 것이며, 문자의 형식이나 의미와는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화행과 그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표적인 입장은 문맥변화이론이다.

화행 이론은 언어가 단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관찰에서 시작한다. 특정 화행이 일련의 구성 규칙에 의해 정의됨을 나타낸다. 화자와 청자는 이런 규칙을 공유하고 다양한 행동을 행하고 해석한다고 가정한다. 규칙에 의해 정의된 특정 행동은 다음 행동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담화 응집성은 지역적이고 행동 근거로 나타난다. 즉 행동간의 연속적 관계는 발화를 행동과 관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지식에 근거한다. 담화에 대한 화행 접근은 구조와 응집성에 대한 텍스트/문맥 관계 뿐 아니라 특정한 견해를 야기한다. 응집성은 내재된 발화와 발화를 화행으로 정의하는 규칙과 관련시키는 사상 규칙과 말한 것의 표면의 언어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사상규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연관시키는 행동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응집성에 대한 화행 접근은 규칙 중심적이다. 화행의 정의에 대한 구성 규칙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발화와 행동을 연결하는 사상 규칙 발화-행동 상관성을 연결할 연속적 규칙을 필요로 한다(Labov and Fanshel 1977).

3. 1. 2. 화용론

화용론은 언어적 부호를 통해 나타나는 논리적 명제적 관습적 의미를 보충하는 개별적 내포 의미이다. 다른 층위의 의미에 집중하지만 화용론은 발화 분석을 위한 또 다른 넓은 문맥적 체계를 제공한다. 문맥적 집중이 발화 의미에 대해 상황적 문화적이지 않고 발화시 화자와 청자의 일반적

가정 즉 서로의 협력적 성격에 대한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텍스트적 상황적 정보와 작용한다. 하나의 발화에서 말한 것은 다른 발화에서 화자의 미 추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담화는 추론적 관계의 연결로 볼 수 있다. Grice(1957)는 말한 것과 함축한 것을 구분하고 함축한 것을 상례적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와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구별한다.

- (7) a. Mary got pregnant and John was pleased.
 b. Mary got pregnant but John was pleased.

(7a)와 (7b)는 명제논리상 $(p \wedge q) \equiv (q \wedge p)$ 의 동일한 진리치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명제의 선후관계에 따라 의미나 용법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7b)에서는 (7a)의 명제적 의미에 부가적으로 대조나 의외성이 나타난다. *and*, *but*과 같은 연결사처럼 발화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특질에 따라 나타나는 함축을 상례적 함축이라고 하고 단어의 진리 조건적 의미에 부가되어 나타난다.

Grice(1957)가 제시하는 다른 부류의 함축이 대화상의 함축이다. 이는 대화를 결정짓는 일반적 원리로 협동의 원칙(cooperative principle)으로 구분된다.

(8) 대화상의 격률

- a. 양의 격률:
1.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2.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 b. 질의 격률: 당신의 기여가 참된 것이 되도록 하라.
1.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2. 적절한 증거를 가지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라.
- c. 관계의 격률: 연관성이 있도록 하라.
- d. 양태의 격률: 명료하도록 하라.
1.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말라.
 2. 중의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
 3. 간결하게 말하라.

4. 순서에 맞게 말하라.

Grice는 상례적 함축과 구분해서 대화상의 함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9) 대화상의 함축
 - a. 추리될 수 있다.
 - b. 취소될 수 있다.
 - c. 분리할 수 있다.
 - d. 발화된 문장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다.
 - e. 말해진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행위로써 전달된다.
 - f. 불확정적일 수 있다.

함축 개념은 의미론에서 다룰 수 없던 전달의미를 밝히고 의미 기술을 단순화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연관성의 격률에 관해서 Grice(1957)를 재조명하려는 두 가지 시도가 있다. 그 하나는 Horn(1984)이고 다른 하나는 Sperber and Wilson(1986)이다. 두 가지 제안이 모두 연관성에 초점을 두지만 Horn이 Grice의 일반적 테두리 내에서 연관성을 두려고 하는 데 반해, Sperber and Wilson은 연관성을 의사소통과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초석으로 삼아 연관성이라고 부른다(Mey 1993).

연관성 이론가들은 Grice의 협조의 원리 중 관계의 격률의 'Be Relevant'에서 출발한다. 발화의 이해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특징은 의미복원과 처리 기회, 접근가능성, 미로발언 등이다. 연관성으로 어휘적 중의성이 해결되는 예를 보자(Blass 1990: 65).

(10) The meal at the Taj Mahal last night was too hot.

(10)의 *hot*은 중의성(뜨겁다와 맵다)을 가지는데 *Taj Mahal*의 식당이 백과사전식 정보에 의해 인도식 식당이고 인도 음식이 보통 맵다는 연관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3. 2. 대화 분석

3. 2. 1. 상호 작용적 사회언어학

상호 작용적 사회언어학은 상호 작용을 하는 동안에 창출되는 사회적이고 언어학적인 의미로 시작된다. 화행 이론과 비교해서 발화가 행동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의미의 척도로 분석될 수 있다는 체계를 제공한다. 발화는 해석의 지역적인 문맥과 전역적인 문맥 둘 다 안에 놓인다. 어떤 발화든지 전에 나타난 것(지역적 문맥)과 특정한 상황 유형(전역적 문맥)의 이해의 일반적 체계에 연속적으로 연관적이다. 문맥화 단서는 이런 문맥의 두가지를 야기시키는 언어의 양상으로 메시지가 이해되는 체계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답화는 다른 층위의 의미의 구성을 위해 문맥화하는 도구이다. 각각의 발화는 계속되는 지표를 제공하는 가정의 더 넓은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

신호를 주는 의미를 위한 문화적 저수지의 부분인 언어적/비언어적 신호는 상호 작용적 사회언어학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에도 중요하다. 이는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 기원하고 언어인류학자인 Gumperz(1982)는 사람들이 한 언어의 문법적 지식을 어떻게 공유하는 가와 말한 것에 대해 다르게 문맥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Gumperz(1982)에 의해 제안된 구두의사소통 이론은 문화, 사회, 언어, 자신에 대한 초기 이론 위에 개념과 분석적 과정을 첨가하여 문맥화 신호라고 칭한다. 이는 두 개념 즉 문맥적 전제와 상황 추론으로 구분된다. 다음 예가 문맥화 신호로 상승 억양이 사용된 예이다.

(11) TEACHER: James, what does this word say?

JAMES: I don't know.

TEACHER: Well, if you don't want to try someone else will.
Freddy?

FREDDY: Is that a "p" or a "b"?

TEACHER: (encouragingly) It's a "p."

FREDDY: Pen.

선생님의 반응(Well, if you don't want to try someone else will)은

Freddy의 *I don't know*을 문자적 의미 뿐 아니라 Freddy가 질문에 답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함을 나타낸다. 그는 흑인 미국 사회의 구성원인 Freddy가 격려인 욕구를 나타내는 마지막 상승 억양으로 격려가 필요함을 나타냄을 주목한다.

사회학자인 Goffman(1971)도 언어가 사회생활의 특별한 상황에 어떻게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 의미나 구조를 반영하고 첨가하는 지를 연구했고 이런 견해들은 언어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된다.

3. 2. 2. 민족지학적 접근

민족지학적 접근은 전통적 인류학 이론과 언어적 이론의 차이와 말하기 방법에 대한 분석적 주의 집중의 결여의 관찰로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의 중심은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의사소통으로 언어는 문법 지식을 넘어선 의미, 믿음, 가치 등의 조합의 부분이다.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에 있어서의 중심 개념은 의사소통적 능력이다. 이 개념은 언어적 능력을 문화적 지식으로 통합시킨다. 언어적 능력은 추상적인 문법적 규칙 뿐 아니라 언어 사용을 지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원칙을 포함하는 언어학적 부호에 수반되는 문화적 지식이다. 그러나 언어는 경험을 나타내는 개별적 소유물, 능력, 도구 이상이다. 언어는 우리가 경험을 이해하도록 한다. Hymes(1972: 16)는 의사소통적 사건은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인 은유나 견해라고 설명한다. 부호로서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경험의 사용이 의미가 공유된 세계를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화는 언어의 특성과 상호 주관성 혹은 적어도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 더 큰 사회적 혹은 문화적 실재의 구성소이다.

Hymes(1972)는 민족지학 연구에 근거하여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SPEAKING으로 나타낸다.

(12) Hymes의 SPEAKING 모델

S	setting	physical circumstances
	scene	subjective definition of an occasion
P	participants	speaker/sender/addressor
		hearer/receiver/audience/addressee

E ends	purposes and goals outcomes
A act sequence	message form and content
K key	tone, manner
I instrumentalities	channel (verbal, nonverbal, physical) forms of speech drawn from community repertoire
N norms of interaction and interpretation	specific proprieties attached to speaking interpretation of norms within cultural belief system
G genre	textual categories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행위의 연속, 어조, 장르, 그리고 전달 수단은 담화의 형태를, 목표와 결과는 담화의 기능을, 배경과 참여자 그리고 규범은 담화 상황을 나타낸다.

상호작용적 사회 언어학과 같이 의사소통의 민족 지학은 발화 분석에 대해 문맥적 접근을 제공한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말한 것은 항상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실재의 구성소이다. 이는 형태나 기능 하나의 분석은 행동과 믿음으로 창출되는 이해와 번역의 전체적 체계의 단지 일부라는 것이다. 민족지학자들이 연구한 의사소통적 단위는 서로를 구성한다고 믿어진다. 사건과 상황은 행동과 의존 관계에 놓여 있다. 발화 사건과 상황의 의사소통적 구조는 구성소 행동의 기능을 나타내고 행동 자체의 기능은 사건과 상황의 구조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행동, 믿음, 이해의 체계이고 의사소통은 문화 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일부이다.

3. 2. 3. 대화 분석

대화 분석은 사회적 개인적 실재를 구성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과정을 발견하려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서 시작했다. 중점이 되는 것은 문맥에 의해 어떻게 언어가 형성되는가와 언어가 문맥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대화 분석가들이 중점으로 삼는 문맥은 실제 발화와 행동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적 구조, 화자 의도, 발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은 실제 행동과 말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화 분석가는 결과적으로 애기의 구성에 있어 구체적인 장치나 구조를 면밀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 발화가 서로의 의미에 미치는 기여는 실제로 말한 것에서 입증돼야 한다. 발화 사이의 관계도 가정될 수 없다(Sacks 1971). 발화 사이의 상호 의존성은 이해자들이 애기에서 의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대화 구조의 많은 다른 연구들은 엄격히 언어학적이 아닌 단위에 중점을 두는데 그 중 하나는 인접쌍의 개념으로 이는 연속적으로 제약을 받는 말차례의 쌍이다. 그 안에서 첫 번째 쌍의 부분이 나타나면 두 번째 쌍의 부분에 자리를 주게 된다(Schegloff and Sacks 1973). 그 예가 질문/대답 쌍, 칭찬/대답 쌍들이다. 인접쌍은 구조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은 선형적 연속을 제약하고 대화를 형식적으로 한정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3. 2. 4. 다양성 분석

대화 분석가들이 사회적 계층의 지역적 구조에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데 비해 다양성 분석은 언어 구조내의 계층과 발견의 전통적 수단에 벗어나는 양상의 행동을 발견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다양성 분석은 담화에 보다 낮은 음운론적, 통사론적 층위의 다양성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도구와 개념을 텍스트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텍스트와 상황은 부호화할 수 있고, 셀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인 요소로 나누어진다. 다양성을 주장하는 Labov and Fanshel(1977)은 언어의 담화를 단위로서의 단일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 정의할 뿐 아니라 단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서로 관련되는 더 작은 단위들로 구성되는 가도 분석한다. 조그만 단위들이 텍스트를 구성하므로 그런 단위들이 서로 관계, 텍스트를 서로에 체계적 효과를 가지는 단위로 분절화, 범주화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므로 단어, 의미, 절, 행동간의 담화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위사이의 체계적 관계 때문에 생기는 응집성을 연구하는 언어학적 분석 단위이다.

4. 결 론

구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접근법은 모두 인간의 행동을 의미의 상호 작용적 구성의 부분으로 본다. 각각의 발화가 실제로 수혜자에 의해 해석될 뿐 아니라 각각 발화는 사회 문화적 의미의 보다 큰 체계의 부분이다. 그러므로 발화는 언어자료로서의 구조화된 가설의 발화에 완전히 의존한다면 잠재적 다양성 충위를 할당받는다.

다양한 기원은 언어학적 의미의 안정성, 언어학적 의미의 상호 작용적 의미에의 기여, 언어가 의사 소통적 목적으로 의도된 정도에 대한 가정을 포함해서 언어의 다른 개념과 관계된다. 접근 방법의 기원의 차이는 언어에 대한 다른 가정과 믿음, 언어적 의미의 안정성에 대한 가정, 화자 의도의 역할, 언어가 의사소통적 목적을 가지도록 의도된 정도, 상호 작용적 의미에 대한 언어적 의미의 기여 적어도 최소한 다른 기원으로 여겨지는 것이 언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떤 접근 방법은 단편적인 얘기에 집중(예: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하고 다른 접근 방법은 넓은 범위의 텍스트(예: 다양성 분석)에 걸친 담화 항목의 분포에 집중한다.

어떤 접근 방법은 대화자에 관한 많은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정보를 필요로 하고 대화자를 자신들의 얘기 분석에 있어서 정보원으로 이용(예: 의사소통의 민족지학)하는데 비해 다른 접근 방법은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특성이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참여자 전략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적인 화자/청자를 가정한다(예: 화용론). 방법론적 차이는 다른 이론적 가정에 근거한다. 상호작용적 의미에 대한 얘기의 연속적 구조보다 언어적 의미가 덜 중요하다면 분석가는 언어적 형태와 구조 그 자체에 주의를 덜 기울일 것이다(예: 대화 분석). 발전된 견해에 따라 담화 분석 자체와 더불어 다른 실용적 관심과 궁극적 목적이 제공된다. 각각의 접근 방법은 담화에 대한 약간 다른 견해를 채택하고 발화를 분석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다양성 분석가들은 담화 분석(때로는 텍스트 분석)을 언급하지만 화용론자들과 화행 이론은 대신 “사용되는 언어” 혹은 “문맥에서의 언어”를 언급한다. 대화 분석은 민족 지학적 기원에서 출발한 접근이고 상호작용적 접근은 “상호작용적 사회언어학”으로 언급한다. 민족학적 접근이 화용론과 화행 이론과 “사용되는 언어”, “문맥내의 언어”를 강조하는 점은 같지만 사용이나 문맥의 개념이 철학적 기반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

모든 접근 방법은 구조와 기능, 텍스트와 문맥, 담화와 의사소통의 관계

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접근 방법을 비교하는 것은 담화 분석내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다. 기본적인 담화 현상(예: 차례 말기, 정정, 주제 구조 조직화, 얘기하기, 담화 표지, 대화 추론과 문체)은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담화가 어떻게 작용하는 가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는 모델과 이론 발전과 담화 모델/이론과 언어 모델/이론이 연결로 관심을 돌려보면 담화 분석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연구에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적/개념적 통일성을 모색해 보면서 한가지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합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Schiffrin(1987)의 담화표지의 연구가 그 예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근. 1999. 「텍스트 이론」. 서울: 아르케.
- 장석진. 1994. 「통합문법론-담화와 화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Austin, J.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augrande, R. D. and W.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Longman.
- Blass, R. 1990.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G. and G. Yule.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üßmann, H. 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Kröner.
- Clark, H. and E. V.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Goffman, E. 1971. *Relations in Public*. New York: Harper and Row.
- Gordon, D. and G. Lakoff. 1975. "Conversational Postulates," in Cole and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rice, H. P. 1957. "Meaning." *Philosophical Review*, 67: 377-88.
- Gumperz, J. 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 1985. "Dimensions of Discourse Analysis: Grammar," in van

- Dijk ed.,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29-56.
- Halliday, M. A. K. and R.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arris, Z. S. 1951. *Methods in Structural Linguis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 1988. "Emergent Grammar and the a Priori Grammar Postulate," in D. Tannen ed., *Linguistics in Context: Connecting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Norwood, NJ: Ablex Press, 117-34.
- Horn, L. R. 1984. "Toward a New Taxonomy for Pragmatic Inference: Q-based and R-based Implicature," in D. Schiffrin ed., *Meaning, Form, and Use in Context: Linguistic Application*. GURT 85 11-42.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Hymes, D. 1972. "Models of the Interaction of Language and Social life." in J. Gumperz and D. Hymes eds.,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35-71.
- _____.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Johnson-Laird, P. N. 1983. *Ment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v, W. and D. Fanshel. 1977. *Therapeutic Discourse*.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nson, S.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acre, R. E. 1976. "Mystery Particles and Affixes," *CLS* 12: 468-75.
- Mey, J. 1993. *Pragmatics*. Cambridge, MA: Blackwell.
- Newmeyer, F. 1983. *Grammatical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yne, D. 1997. Book Review, *Language*, Vol 73. Num. 3.
- Pike, K. L. 1967. *Language in Relation to a Unified Theory of the Structure of Human Behavior*. The Hague: Mouton.
- Polanyi, L. 1990. "Advanced Discourse Modeling Techniques," ms. Rice University.
- Pomerantz, A. 1984. "Agreeing and Disagreeing with Assessments: Some

Features of Preferred/Dispreferred Turn Shapes." in J. Atkinson and J. Heritage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57-1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ks, H. 1971. *Lecture Notes. School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acks, H., E. Schegloff, and G. Jefferson.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in Conversation." *Language*, 50: 696-735.

Salkie, R. 1995. *Text and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Schegloff, E. A. and H. Sacks. 1973.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8: 289-327.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8. "Conversation Analysis," in F. Newmeyer 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1-76.

_____.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Searle, J.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75. "Indirect Speech Acts."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59-82.

Sperber, D. and D.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asil Blackwell.

van Dijk. 1977. *Text and Context*. London: Longman.

van de Velde, R. G. 1984. "Prolegomena to Inferential Discourse Processing," *Pragmatics and Beyond*, 5: 2.

Verschueren, J. 1999. *Understanding Pragma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E-mail: yuson_k@hotmail.com